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 육성 힘쓰겠다”

지스트발전재단 신임 이사장 김해명 엠에스엘(주) 회장 취임

내년 지스트 설립 30주년...현안 해결 앞장
국가 과학기술 발전·지역사회 공헌 등 최선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 창의적인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공헌에 힘쓰겠습니다.”

(제지스트발전재단 제4대 이사장에 엠에스엘(주) 김해명 회장이 취임했다.

지스트발전재단은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 국가 차원의 중장기 연구개발, 기초·응용연구의 수행 등 지스트의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지원해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에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지난 29일 오후 지스트 행정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사장 이·취임식은 지스트 김기선 총장, 전창덕 대외협력처장(연구원장), 지스트발전

재단 이사진, 지스트 기술경영아카데미(GT MBA) 역대 동문회장, 지역 기업인, 지스트 보직교수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해명 신임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내년이면 설립 30주년을 맞는 지스트는 그간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발전해왔다”며 “발전재단의 4대 이사장으로서 지스트 구성원들과 뜻을 공유하고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사장으로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스트와 국가 과학기술의 발전, 창의적 인재 과학기술 인재 육성과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지스트발전재단 제4대 이사장으로 취임한 엠에스엘(주) 김해명 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해 이사장직을 수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엠에스엘(주)를 비롯해 ㈜엠에스티, ㈜시선을 경영 중이며 한국생산성본부 호남 교류회장,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광주·전남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광주문화재단과 디자인비엔날레 등 문화계 발전을 위해 기부해 온 기업인이다.

김기선 지스트 총장은 축하에서 “그동안 지스트와 지스트발전재단의 눈부신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고정주 이사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김해명 신임 이사장도 앞으로 지스트발전재단과 지스트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3년간 제3대 이사장을 맡아온 고정주 이임 이사장은 “지스트발전재단 이사님들과 그동안 용기를 주신 지스트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출중한 능력과 열정이 넘치는 김해명 신임 이사장으로 인해 변화와 혁신이 지속되도록 항상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재만기자



목포해경,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초청 행사

목포해양경찰서는 30일 “최근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27명을 해경 전용부두로 초청해 3009함 합정 견학 행사와 함께 사물놀이 공연으로 따뜻한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꿈나무들에게 바다 안전의 중요성을 심어주고 해양경찰관에 대한 소개로 시작했다. 이어 ▲조타실 방문 ▲경비함정 각종 장비 시연 ▲구명조끼 착용 등 물놀이 안전 교육 ▲고속단정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목포해경 사물놀이 동호회 ‘어영차’의 공연은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어영차 회장을 맡고 있는 임용혁 경감(3009함 부장)은 “지난 8월에도 목포전통예술단 ‘빛오름’과 함께 해남겨자씨공동체(장애인복지시설)를 방문해 사물놀이 재능기부와 봉사활동을 실시했다”며 “지역민들과 공감·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뜻깊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해남경찰, 교통안전시설 일제 점검

해남경찰서(서장 공정원)는 지난 28일부터 5일간 해남군 관내 파손·방치되거나 법령기준에 맞지 않는 교통안전시설물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점검 대상으로는 포트폴, 땅거짐 등 도로 훼손 여부 및 신호등·안전표지를 가리는 가로수와 강풍으로 인한 훼손된 신호기, 부속물 등이다. 공정원 해남경찰서장은 “지자체·국토관리사무소와 협조체제를 구축,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

전남자치경찰위-지역대학 ‘학술교류 활성화’ 협약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조만형)가 자치경찰제 발전을 위한 연구 및 학술교류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대학과 잇따라 업무협약을 했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동신대학교(총장 이주희)에 이어 목포대학교(총장 박민식)와 자치경찰 분야 연구 및 학술교류 확대 업무협약을 지난 29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위원회와 두 대학은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치안서비스 협업 ▲산학협력단 등과 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경찰행정학과 등과 연계한 도민 맞춤형 자치경찰 정책 개발 등을 함께 추진한다.

특히 위원회는 두 대학과 현재 중점 추진 중인 과학지안 분야 정책 개발 및 연구에 힘쓰기로 했다.

위원회는 각 대학 산학협력단을 비롯한 산하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향후 효과적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정책 등이 연구·개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은 “동신대학교와 목포대학교가 자치경찰의 동반자가 돼 기쁘다”며 “대학과의 협력관계를 긴밀히 하고 교류의 폭을 확대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출범 이후 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해 다양한 협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지속적인 도내 대학 및 공기업과 업무협약을 통해 자치경찰제 발전 동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재정기자

한농연 영암연합회-경남 산청연합회 우호교류 행사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영암군연합회는 30일 “최근 경남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산청군연합회 회원들을 영암군으로 초청, 영호남 친선 우호 교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암군 회원 60여명과 산청군 회원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환영 행사에 이어 진행된 기찬 및 밭길, 하정음미술관 등 영암군의 주요 문화관광지 탐방과 파프리카 농장 견학 등을 통해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우승회 영암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양 단체의 변함없는 우정과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에 감사드리다”며 “변화하는 농업 기술과 지역의 차이를 넘어 농업의 혁신을 통한 미래 견인을 위한 협력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자”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추진한 농업경영인들은 “현재의 농업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는 새로운 농업 육성에 힘을 모으자”며 의지를 다졌다. 영암군과 산청군은 1999년 영·호남의 화합을 위해 자매결연을 맺고 이후 상호협력과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교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영암=나동호기자

광양제철 이승열 계장, 소방안전관리 경연 ‘대상’

광양제철소 안전방재그룹 이승열 계장이 소방안전관리 업무역량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30일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1회 소방안전관리 실무능력 경연대회에서 이승열 계장이 대상을 거머쥐며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소방안전관리 실무능력 경연대회는 소방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우수 소방계획서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한 경연대회는 총 3개 경연 분야(특급, 1급, 2·3급)로 구성돼 특정소방대상물 소방관리자들이 제출한 소방계획서의 ▲소방계획 ▲우수사례 ▲소방계획 이행방법 등을 평가한다.

이 계장은 1차 예선을 통과한 후 2차 지역 예선에서 전남 18개 특정대상물 중 1위를 차지해 전남지사상을 수상했으며 각 시·도의 분야별 1위로 확정된 19개 팀이 경연을 펼치는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에서 이 계장은 최종 특급 6개소 중 1위에



선정돼 전국 대상을 수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으며 광양제철소 소방관리 능력을 알렸다.

광양제철소는 이번 경연대회에서 전국 대상을 수상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실무능력 우수업체(기관)’ 현판을 수여받는다.

이승열 계장은 “타 기관들과 소방안전관리계획을 공유할 수 있어 유익했고 광양제철소의 소방안전 활동이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며 “더욱 안전한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양홍렬기자

사랑의 교회 봉사단, 목포 유달동 취약계층 지원

사랑의 교회 기독교 사랑의 봉사단이 최근 목포 유달동 관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연탄 1천600장(8세대 각 200장), 난방유 500ℓ(5세대 각 100리터)를 지원했다.

자원봉사자 40여명은 2가구에는 직접 연탄을

전달했고 나머지 가구는 업체를 통해 배달했다.

봉사단 관계자는 “취약계층 이웃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기본 마음으로 봉사했고 앞으로도 이웃들을 돌보는 일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목포=정해선기자



광산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 연탄 나눔 봉사활동

광주 광산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수현)는 30일 “광산구 삼도동 일대에서 홀몸 어르신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고자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봉사활동에는 이용빈 국회의원(광산갑)과 ㈜따뜻한 사람들 정경남 이사(효령노인복지타운 본부장), 유대선 삼도동장 등이 참여해 연탄 1천500장을 홀몸 어르신께 전달하며 온기를 더했다. 연탄은 광산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가 후원한 금액으로 마련됐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회원은 “물가 상승으로 걱정하는 홀몸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걱정을 덜고 마음 편히 따뜻한 겨울을 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했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수현 광산구가정어린이집연합회장은 “연말 연시 모두 바쁘지만 잠시나마 이웃을 돌아보며 지역사회에 추위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올해 8번째 이어온 연탄 봉사를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옥근기자



호남대 공자아카데미 ‘한·중 미술 교류전’ 개막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원장 손완이)는 지난 29일 ‘제6회 한·중 미술 교류전’ 개막식을 갖고 오는 12월2일까지 전시에 들어갔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한·중 양국 간 문화예술 교류 촉진과 발전을 위해 공자아카데미 1층 다목적홀에서 개최된 이날 개막식에는 박상철 호남대학교 총장과 중국허베이미술대학교 조형예술대학 지양생다 원장 및 양교의 출판 교수들이 함께 참석했다.

이번 교류전에는 유화 작품을 비롯해 수묵화, 조각 작품 등 호남대 미술학과(학과장 구만재)

와 중국허베이미술대 소속 교수 및 석·박사 학생 50여명의 작품 총 60여점이 전시된다.

올해로 6회째 한·중 미술 교류전에 참가하고 있는 허베이미술대학교는 중국 유일의 사립미술 대학교로서, 2002년 설립돼 예술, 영화, 미디어 분야의 48개 전공에 7천여명의 학생들이 재학 중인 예술 종합대학교다.

특히 대학 설립자인 편종이 총장은 국가 1급 미술가로 동몽학과 창시자이자 중국화단에서 명성이 높은 유명 화가이며 세계적으로 왕성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다.

/임재만기자